

# 인쇄문화의 기원과 변천사 살아 숨쉬는 박물관

독일 마인츠의 구텐베르크 박물관을 찾아서



구텐베르크 박물관에는 구텐베르크가 금속활자인쇄술을 발명했을 당시의 인쇄를 체험할 수 있는 인쇄소도 마련돼 있다.

이정모 | 유로코리아커뮤니케이션즈 유럽지사장

1992년 여름, 필자는 한 고약한 독일 할머니와 같이 살고 있었다. 서로 티격태격하며 지내던 어느 날 처음으로 베틀시장 구경을 나서는 필자에게 그 고약한 할머니가 던진 유머는 할머니의 모든 악행을 용서하게 했다. 그 유머는 다음과 같다.

어떤 명칭한 사람이 친구에게 다락방에서 찾아낸 낡은 성경책을 베틀시장에 내다 팔았다고 자랑했다. 이 말은 들은 친구 왈, “어떤 성경인데?” 명칭이가 대답하기를 “응, 구텐베르크란 친구가 인쇄를 했더군.” “아니, 뭐라고, 그 귀한 책을 베틀시장에서 팔아버렸단 말인가?” “아닐세, 아마 그 책은 어디서도 제값을 못 받았을 걸세. 왜냐하면 마틴 루터란 친구가 낙서를 잔뜩 해놓았거든.”

**구텐베르크 영화 상영하고 당시 인쇄술 소개해** 구텐베르크의 고향 마인츠를 찾아가기에 앞서 구텐베르크 박물관의 웹사이트(www.gutenberg.de)에서 충분히 사전학습을 한 후 딸아이를 데리고 왕복 350킬로미터의 여정에 올랐다.

마인츠 시내에 있는 구텐베르크 박물관은 지난 1900년 구텐베르크 탄생 5백주년을 맞아 마인츠 시민들이 구시가지 중심가 한복판에 건립했다. 마인츠 시민들이 박물관을 세운 이유는 단지(당시 그들이 알고 있기에) 세계최초로 금속활자 인쇄술을 발명한 구텐베르크의 기술과 작품들을 전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다른 문화권의 문자와 인쇄술도 함께 소개하기 위해서였다.

정문을 들어서면 입장권을 사야 한다. 그러나 입장권을 보자는 사람도, 입장권을 절단하는 만행을 저지르는 이도 없다. 게다가 구텐베르크 박물관의 입장권은 아름답다. 입장하자마자 운 좋게 구텐베르크 일생에 관한 영화가 상영됐다. 영화는 그야말로 영화박물관에나 전시돼야 할 만큼 낫았다. 재미있는 것은 그 영화가 구텐베르크를 훌륭한 위인으로 묘사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구텐베르크가 있었다, 금속활자를 개발했다. 망했다, 덕분에 금속활자 인쇄술이 빠른 시간에 전 유럽으로 퍼질 수 있었다” 이게 전부다.

영화를 보고 내려가니 구텐베르크 당시의 인쇄술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었다. 활자를 어떻게 만들었고, 어떻게 식자를 했으며, 다색인쇄물을 어떻게 한 번의 인쇄과정으로 만들 수 있었는가를

배웠다. 2층의 어두컴컴한 방에는 세계에 몇 권 남아 있지 않다는 《42행 루터 성경》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과 다른 문화권 인쇄기술도 소개해** 구텐베르크 박물관은 구텐베르크만의 박물관이 아니다. 그 이전부터 지금까지 발전해온 유럽의 각종 인쇄기가 전

시돼 있다. 또 아라비아와 중국, 일본 특히 한국의 인쇄술에 대해 특별한 공간을 만들어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고 싶어하는 《직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찾을 수는 없었지만, 박물관 안내서에는 금속활자인쇄술은 한국에서 제일 처음 발명됐으며, 중국에서는 19세기까지 별로 활용되지 못했던 데 반해 한국에서는 폭넓게 활용돼왔다고 서술돼 있고, 또 한글과 문방사우에 대해서도 특별히 설명돼 있다. 한편 구텐베르크 박물관은 인쇄술만큼이나 종이 제조기술을 중요시했는데, 우리나라는 손으로 짚어낸 데 반해 구텐베르크가 프레스기를 사용하는 선진기술(?)을 개발한 데는 유럽의 종이가 두껍고 뻣뻣해서 인쇄에 어려움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전시는 전시일 뿐이다. 요즘같이 인터넷이 발달한 시대에 굳이 그 멀리까지 갈 이유가 뭔가? 하지만 구텐베르크 박물관은 찾아갈 충분한 이유가 있다. ‘인쇄소’가 바로 그것이다. 구텐베르크 박물관에는 누구나 가서 직접 인쇄를 해볼 수 있는 인쇄소가 딸려 있다. 필자가 찾아갔을 때는 한 어린이가 친구 8명을 초대해 자신의 생일 파티를 이곳에서 열고 있었다. 생일날 모여서 함께 인쇄를 해보는 것이다. 미리 약속을 잡지 못하고 간 필자와 필자의 딸은 미안하게도 인쇄소 소장인 오토 마틴 박사의 지도를 받아서 1시간 정도 각종 인쇄를 해봤다. 재미있었다. 활자가 찍힌 종이의 느낌과 잉크가 섞여 새로운 색깔을 만드는 작업은 딸아이가 책과 인쇄의 신비를 경험하기에 충분했다.

인쇄술은 오랜 여행의 산물이다. 서로 다른 사람과 문화가 그 여행에 동행했다. 딱히 누구의 것이 아니다. 올림픽 경기하는 것도 아닌데 누가 먼저 테이프를 끊었다는 것이 왜 그리 중요할까? ■

이정모씨는 연세대 생화학과의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독일의 본대학 화학과에서 박사 과정을 밟고 있으며 유로코리아커뮤니케이션즈 유럽지사장도 겸하고 있다. 《달력과 권력》을 펴냈다.